불교文人 · 장애인이 예술로 전하는 위로

부산불교문인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展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사상갤러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발달장애인 미술 등 30여 점 전시
지난해 말부터 글쓰기 · 작품 활동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자리 마련



부산불교문인협회는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전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개최한다. 사진은 3월 7일 열린 개막식 테이프 컷팅 모습.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3월 18일까지 부산 사상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 40여 명의 미술, 공예작품 10여 점을 비롯해 시와 그림을 담은 시화 작품 30여 점, 수필 등이 전시된다. 작품 활동에 동참한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다. 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자립생활과 지역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3월 7일 열린 개막식은 테이프 컷팅 및 인사말과 작품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차정연 부산문인협회 회장, 양원식 부산불교문인협회 고문, 정영자 한국문인협회 고문, 신상해 부산광역시시의회 의장, 부산문인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람객들은 시와 미술 작품을 보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작품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그리고 적은 내용을 담아 완성했으며 '설날', '벚꽃', '튤립', '나는 새' 등 일상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을 주제로 기획됐다. 작품에 찍힌 QR코드를 관람객들이 핸드폰에 입력하면 작품을 직접 낭송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작품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발달장애인들이 2년 여간 틈틈이 제작한 작품들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라온누리에 입주해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글쓰기 수업 및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하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은 "관계와 소통의 소중함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이번 전시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다영 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전시"라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신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문학에 담아 전하고 있는 불자 문인들의 모임이다. 문학 활동 뿐 아니라 사찰 순례 법회 및 봉사활동을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마스크 3000여 장을 나누며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매년 실상문학상을 수여해 불자 문학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실상문학상은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지난 1998년에 제정한 상이다.

부불대, 2022년 1학기 입학식 봉행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이하 부불대)이 3월 7일 대학 내 강의실에서 2022년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은 △개회사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학교발전기금전달식 △입학생선서 △환영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 시국으로 학생모집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부불대는 불교엘리트반 130여 명을 비롯해 불교학과, 기초교리학과, 불교문화학과, 불교문화 전문지도사반 등에 총 2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부불대는 이번 해 개교 40주년을 맞았다. 부불대는 198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어 도심포교에 앞장선 불교대학 대표주자이며,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캠페인과 '남북평화통일기원 3보 1배', '소외계층 위한 연탄나누기' 등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교 이후 졸업생 1만 5000여 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200여 명, 승려 100여 명을 배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 선언

3월 8일 교구종회서 선언문 낭독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원통전에서 진행된 교구종회에서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언식 후 단체 기념 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원통전에서 진행된 교구종회에서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찰은 수천 년간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살아왔다"며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생명살림 사상과 우리 사찰의 실천으로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가 정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영축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 말사 사찰수행환경 및 자연 환경보호 활동으로 난개발 방지 △법회 및 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천 지속적 홍보 △산림법에 명시된 사찰림을 보존하고 가꾸어 맑은 공기와 푸른 환경 제공 △일상생활 속 친환경 제품 사용 및 검소함 실천 △불교대학총동문회와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플로깅(plogging)운동 전개 등을 꼽았다.

스님들은 교구종회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살림 실천선언 후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어른 스님들은 나무 하나, 꽃 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불교의 삶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것을 덕목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며 "불교 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지구와 생명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며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이라도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공존하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기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전국교구본사 및 서울 주요 사찰들이 본격적인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백양사를 비롯해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기후위기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탄소제로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한 해 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 한국정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동명불원,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3월 10일, 불교대학 입학생 70명 수계

수행정진, 불제자 서원 자리
"수계하면 지계신장들 도움"



(재)부산동명불원이 3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법회는 동명불원 불교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입학을 맞아 수행으로 정진하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수계의식은 대종오타로 시작해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비 대신 관정 의식으로 이어졌다. 참여 대중은 참회진언을 외며 관정을 받았고 수계의식은 귀의, 선계상, 발원, 회향, 계첩수여 순으로 마무리됐다.

전계대화상은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갈마아사리는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 교수아사리는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이 담당했으며 불교대학 입학생 70명과 일반인 5명이 참여해 계를 받았다.

전계대화상 덕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은 계체(戒體)가 된다. 계체가 되면 지계 신장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모든 일을 원만히 이뤄지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지계자와 파계자로 나눠 분류하셨다. 그만큼 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계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동명불원은 도심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동명불원 불교대학은 사찰 예절부터 불교교리, 팔관재계 등 불교의례와 경전, 수행 실참 등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3월 3일 개강해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실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3월 8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2022년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교육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前 범어사승가대학 강주 용학 스님을 강사로 초빙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36명의 조계종 스님이 등록했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내년까지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을 주제로 2년간 승려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려연수교육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연수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